한국불교 세계화의 '구심점' 첫 해외특별교구 출범 임박

한국불교 세계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해외특별교구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지난 3월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된데 이어 미국 뉴욕불교사암연합회가 처음으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서류 미비로 1차 설립 신청이 보류됐지만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재신청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9월 초순께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사암연합회가 설립을 추진중인 '북미특별교구'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며, 관할지역에는 현재 뉴욕 불광선원, 원각사, 청아사, 뉴저지 원적사, 혜안정사 등 30여 개 사찰, 50여 명의 스님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고 있다.

북미특별교구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조계종 북미특별교구 설립 추진위원장 휘광스님(뉴욕불교사암연합회장, 불광선원 주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부분의 해외사찰이 종단의 지원 없이 스님 개인의 원력으로 창건, 운영하다보니 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통해 종단은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고, 해외사찰은 대한불교

뉴욕 중심 북미특별교구
불광선원 원각사 등 30여 곳서 50여명 정진
이르면 9월 초 출범

조계종 사찰이라는 자긍심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행자 등록 가능, 각종 행정 및 포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북미특별교구 설립 신청서가 접수되면 총무원 총무부는 설립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뒤 종무회의에 상정해 총무원장 스님이 설립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북미특별교구 설립 추진위는 설립 승인이 나면 곧바로 교구장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 초순께 북미특별교구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북미특별교구는 첫 번째 '해외특별교구'이자 지난 2005년 7월 출범한 '군종특별교구'에 이은 두 번째 '특별교구'다.

조계종 종헌 제93조2항에는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종의를 얻어 종단의 특별한 목적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교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종회는 지난 3월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외특별교구 설립 근거를 뒷받침해줬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핵심 및 주요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 해외특별교구 설립 추진에 대한 현지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박차를 가해 나타난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물이 바로 북미특별교구 출범이다.

뉴욕사암연합회의 북미특별교구 설립 추진과 더불어 미국 중부지역 15개 사찰로 구성된 미주중부승가위원회도 최근 조계종 총무원에 '미주중부교구' 별도 설치를 요청하는 등 해외 한국사찰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이 잇따를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현담스님은 "북미특별교구 설립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계 곳곳에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돼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해외포교,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특별교구특보 종민스님은 "북미특별교구의 설립과 향후 운영을 지켜보면서 미국 서부와 중부,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해외특별교구를 추가로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티샤 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 대사(오른쪽)의 예방을 받고 "부임기간동안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가 우호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한-스 우호증진에 최선 다하길"

총무원장 자승스님, 주한스리랑카 대사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부임 인사차 예방한 티샤 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 대사와 환담했다.

6월23일 주한 스리랑카 대사로 부임한 티샤 위제라트네 대사는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총무원장 스님을 찾게 됐다"면서 "기회가 되면 스리랑카를 꼭 방문해주시기 바란다"며 총무원장 스님에게 스리랑카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티샤 대사는 이어 "부임 후 여러 불교국가 대사들과 면담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에 불교국가들이 봉축행사를 함께 열기로 뜻을 모으고 있는데 참석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일정과 장소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뒤 "쓰나미 피해를 돕기 위해 조계종마을을 짓고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타운을 4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공식통로를 통해 교류한 적은 아직 없었던 만큼 부임기간동안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가 우호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법규위법·호계원법 개정 논의

종회 종헌종법특위, '조정합의 제도' 등 검토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스님, 이하 특위)는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가 상정한 '법규위원회법'과 '호계원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특위는 법규위원회의 관장업무 가운데 하나인 행정심판의 범주에 호계원의 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소위원회에 행정심판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 재상정하도록 결의했다.

또한 법규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중앙종회의원과 각종 위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교구본사 국장 이상의 직 가운데 어느 하나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호계원법 개정안에서는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중재조정합의할 수 있는 '조정합의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합의는 여타의 결정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호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기존에는 교구본사 국장 스님 가운데 호법국장 소임을 맡아야만 호계위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9월 임시중앙종회에 앞서 1~2차례 추가 회의를 열어 사찰법 제정안 등 종법 제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직영사찰 관리인 임기2년 '보장'

총무원, 법 개정 추진
종회의원 겸직은 금지

그동안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던 직영사찰 관리인(주지)도 업무평가를 통해 2년의 임기(연임 가능)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영사찰관리인회의'를 열고, 의견수렴을 위해 '직영사찰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총무원이 오는 9월 임시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마련한 직영사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국제선센터. 경산 선본사, 강화 보문사 등 직영사찰의 관리인은 연임이 가능한 임기 2년을 보장받게 된다. 직영사찰 관리인에 대한 겸직금지조항을 신설해 법 개정 후 임명받는 직영사찰 관리인은 중앙종회의원 소임을 겸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제안한 직영사찰 관리인 임기 4년 보장,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등의 개정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직할교구부터 추진중인 주지인사고과제도를 직영사찰에도 적용해 직영사찰 관리인에 대한 업무평가를 해마다 시행하게 함으로써 직영사찰에 대한 책임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직영사찰 지정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타종단과의 분규과정에 있는 '미입주사찰'과 거점도량으로서 종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도 직영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을 직영사찰에 파견할 수 있는 순환근무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박인탁 기자

일본 불교의 '콘텐츠'

현장에서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일본 불교에 대한 단상은 대처로 대표되는 계율적인 문제를 포함해 일제강점기 제국주의를 앞장서 설파하며 한국불교를 오염시킨 주범이라는 생각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이달 초 조계종의 지진피해 희생자 천도재 및 피해자 위문 행사 취재차 찾은 일본 불교를 접하며 배울 점 또한 적지 않음을 깨닫게 됐다.

일본 조동종 대본산인 총지사에서 조계종 대표단은 점심공양을 대접받았다. 밥과 국을 포함해 14가지 찬이 가지런히 놓인 공양상이 1인당 한 상씩 제공됐다. 공양상 옆에는 사찰식에 대한 설명서가 놓여 있었고, 일본 스님들이 직접 설명하기까지 했다. 또 젓가락을 싼 포장지에는 '오관게'가 적혀 있었다.

또 하나, 일본 정토종 창종 80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한 대표단은 2시간 남짓 법회를 참관해야 했다. 긴 시간 동안의 의식은 빈틈없이 짜임새 있게 흘러갔고, 일본 불자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국불교가 선불교를 표방하고 정화를 거치면서 의식이 간소화된 것이 사실이다. 일본불교는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에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도 전통의례를 복원해야 한다." 정토종 법회를 직접 참관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소감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해 정성을 다한 공양상과 전통을 계승해 구현한 의례를 지켜보며 일본 불교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생활불교'라 일컬어지는 일본 불교가 기복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하려는 발상은 한국불교가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어 보였다. 가까운 불교, 생활 속 불교, 현재를 사는 한국불교가 나갈 방향 중 하나가 아닐까.

동국대 경주캠퍼스 특별한 템플스테이

정각원, 8월3~5일 진행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화랑스님)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동국대 교수와 불교문화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정각원은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경주캠퍼스 일원에서 '가족과 함께 교육요람에서 체험하는 사찰문화'를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2박3일간 이어지는 템플스테이는 정각원장 화랑스님의 불교문화 강연 및 교리강좌, 범어사 청련암 금강연수원장 안도스님의 선무도 시연 및 체험, 최미선 어린이지도자 동련 사무국장의 찬불가 배우기, 각성스님의 요가와 위빠사나 수행, 사찰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화랑스님은 "조계종 종립 대학인 동국대 내의 사찰이라는 이점에 맞춰 대학교수 및 전문인이 프로그램을 지도하기 때문에 일반 불자뿐만 아니라 불교 초심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2011 제11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축제

인각사는 일연선사가 겨레의 성서인 삼국유사를 저술한 민족문화유산의 성지입니다. 수몰의 위기를 딛고 1991년부터 사적지 발굴을 통해 옛 대찰을 복원하기 위해 2009년 10월 〈인각사 복원을 위한 천일관음기도〉를 입재, 봉행중이며 그동안 사부대중의 관심과 노력으로 2010년 4월 12일 〈인각사 정비 기본계획〉이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여 2011년 5월 27일 '극락전 복원불사'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연선사의 민족자주, 자존정신 및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한국적 정신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2011 일연·삼국유사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일연선사 추모다례제'와 '일연·삼국유사 문화의 밤'을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인각사 주지 도권 두손모음

일연선사 추모다례제

일시 : 2011년 8월 7일(음 7.8) 오전10시 장소 : 인각사 국사전

일연·삼국유사 문화의 밤

■ 일 시 : 2011년 8월 7일(日) 오후6시 ~
■ 장 소 : 인각사 학소대 수변무대

주요프로그램

1부 산사음악회
민족시인 이상화 시노래콘서트, 국악연주, 마임퍼포먼스, 창작무용

2부 일연·삼국유사 창작 뮤지컬 - 수로부인(각색 : 도권스님, 작곡 : 진우)

3부 대동마당(사회 대구방송 고향별곡 한기웅, 단비)
주현미, 백진우 재즈밴드, 다섯손가락 임형순, 윤사월, 이마음, 김규리

주 최 _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
주 관 _ (사) 일연삼국유사연구원
후 원 _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삼각산 도선사,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대한불교조계종·삼국유사 민족성지
鹿苑角寺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TEL:(054)383-1161 FAX:(054)383-3758
www.ingaksa.org